



심층면접을 통한 부산지역 내 선박수리업의 저성장 요인 분석

임용석 · 이기태[†]
(TS 마린 주식회사)

Analysis on the Low Growth Factors of Ship Repair Industry in Busan Region through In-depth Interview

Yong-Suk LIM · Ki-Tae LEE[†]
(TS Marine Co., Lt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w growth factors of ship repair industry in Busan region. We obtained the responses related to the low growth factors from the CEOs of six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 We arranged the low growth factors as two representative problems, namely, financial problem and technical manpower securing problem. All participants mentioned common problems of practice and delayed payment among companies. From the in-depth analysis, we suggested two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both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need to design such policy that could reduce bad practices between mai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Second, regional government should develop such policy that could help enhance training of technical manpower.

Key words : Low growth factors, Ship repair industry, Low growth, Financial problem, In-depth interview

I. 서론

부산의 선박수리업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산업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해양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선박수리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최근 상당수의 회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노령화된 선박 보수와 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선박수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많은

CEO들은 예전과 달리,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수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 걸쳐 상승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내외부적인 시스템 문제나 가시적으로 들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현상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장애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벤처기업, 또는 여성 기업인의 기업 운영에서의 성장장애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 실제 선박수리업 관련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 Corresponding author :  ts8289@naver.com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리업의 저성장 요인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사업 실패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 유형별 주요 성장장애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각각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부산 지역 내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서 선박수리업의 저성장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업 실패에 대한 정의

기업의 저성장 현상이나 성장 정체 현상이 길어질 경우, 그 자체로 성장장애 요인으로 발휘되어 성장장애는 곧바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함의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기업의 성장장애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서 성장장애로 발현될 수 있는 사업 실패라는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실패의 정의에 관한 연구는 Hwang Sun-Hong(2005)이 언급한 Westorn Brigham의 사업실패에 대한 정의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실패로 수익보다 비용이 많거나 투자이익률보다 자본 비용이 많은 경우, 또한 기대이익보다 실현이익이 적을 경우를 뜻한다. 둘째는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로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은 상태이지만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동성 즉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 셋째는 파산으로 총 부채가 총 자산을 넘어서는 상태로 채권자가 기업의 정리를 법원에 신청하고 기업 활동을 종료시키는 경우이다(Suh Jeong-Heon & Han Kyeong-Suk, 2009). 사업 실패라는 정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사업 실패로 이어지기까지 기업은 많은

변수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실패로 이어지기까지 기업은 한시적으로나마 저성장 곡선을 기록하는 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저성장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저성장 요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2. 국내 기업의 저성장 요인

저성장은 재정, 금융, 산업, 노동, 복지 등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며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낳는다. 특히, 산업에서의 저성장은 기업 자체의 운영에서부터 나아가 지역, 그리고 국가의 저성장을 구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Sung Ji-Eun(2013)은 이러한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의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저성장 요인이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소상공과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접근 방법도 매우 틀릴 뿐만 아니라,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성장 요인에 있어서 기업 유형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 그리고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저성장 요인들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에 관한 저성장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사전-사후 성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장애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Kim Byung-Man(2014)은 자금 성과장애요인과 기업역량 성과장애요인을 거론하였는데, 저성장 요인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 중에서 중소기업의 저성장 요인에 대해 연구한 내용으로 Kim

Moon-Gu · Kim Hei-Tae · Jang Hyun-Jun & Park Jong-Hyeun(2016)이 한국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에서 언급한 국내 중소기업 성장의 촉진과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성장정체 요인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크게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시에 성장정체 극복 요인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5가지 성장정체 요인]

- 기술역량 부족(1차 성장정체 요인)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적 기술역량 부족, 기술혁신 역량 미흡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한계 직면
- 마케팅역량 부족(2차 성장정체 요인)
: 매출처의 한계 및 사업 분야의 성장 한계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역량 열위 및 시장 확대의 어려움 봉착
- 조직역량 부족
: 기업규모 성장에 따른 조직 내 소통부재, 혁신역량 부족으로 성장위기 직면
-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
: 국내외 시장침체에 따른 위기 상황도래
- 경쟁기업과의 특허소송

[5가지 성장정체 극복요인]

- 기술리더십 역량 강화(1차 극복요인)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매출대비 R&D 투자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주력)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2차 극복요인)
: 사업초기부터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적 진출역량 강화
- 시장 지향적 마케팅 역량강화
: 고객중심 마인드를 기반으로 시장 지향적 마케팅 활동 강화
- 리더십 역량 및 조직문화 혁신역량 강화
: 조직혁신을 위한 CEO와 조직문화의 유연성 확대

- 개방형 혁신역량 강화

: 외부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사례 분석을 토대로 기업유형간 기업혁신 요인, 기업협력 요인, 혁신 장애 요인의 차이 비교를 통해서 기업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R&D 투자, 흡수역량, 혁신활동, 협력, 정부지원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의 이익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내부 R&D 투자, 흡수역량, 마케팅 혁신, 그리고 제품혁신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 정보부족, 파트너십 부재, 정부규제 등이 나타났으며 기술부문의 인력과 정보부족, 정부의 법과 제도적 규제 등은 이익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다음 벤처 기업의 경우, 처음 시작 단계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술력과 시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출발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성장 장애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벤처기업 성공의 장애요인으로 신제품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판로개척의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자금의 부족 등이 있다(Jung Dae-Yong & Kim Young-Soo, 2000).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경영상의 장애요인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다른 어려움보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두각 되는 이유는 벤처기업들 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 습득 경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 확보에 대한 초기의 어려움은 넘어서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외 벤처기업의 성장 장애요인으로 전문 인력 부족, R&D 비용 부족, 관련 지원 기관 및 업체 상호 간의 정보 습득의 어려움, 교류 부족 등을 지적한 연구 사례도 있다(Jung Seung-Wha & An Joon-Mo, 1997).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의 마인드 부재를 비롯하여 직원들의 소속감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장애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상공의 저성장 요인에 대한 연구로 Suh Jeong-Heon & Han Kyeong-Suk(2009)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러시 문제로 인해 국내 소상공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정보 리터러시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계층과 교육 정도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현상이 확연하게 차이를 두는데 국내 소상공의 경우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 부족이 사업의 성장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여성 기업의 저성장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경력 단절인 상태에서 창업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상공 형태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성 기업의 저성장 요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Kim Kyung-Jo · Kim Tae-Hun & Choi Jin-Bae(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대부분 영세한 기업을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Kim Young-Ok & Lim Hee-Jung(2006)의 연구에서 여성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관점으로 성별과 관련된 의식적, 무의식적 사회적 차별과 남성 중심적 문화에 기초한 사회 문화적 관점을 들었으며,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이중역할 부담에 기초한 개인적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 주어지며, 이로 인해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성 중심적 문화로 인해 거래처 접대문화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적 관점에서 교육수준과 경력/취업 경험, 전공분야 문제를 언급하였고, 가사노동과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서 역할 갈등에서 결혼상태 여부 등 경영상 애로점을 제시하였다.

Ⅲ. 기업의 저성장 요인들과 대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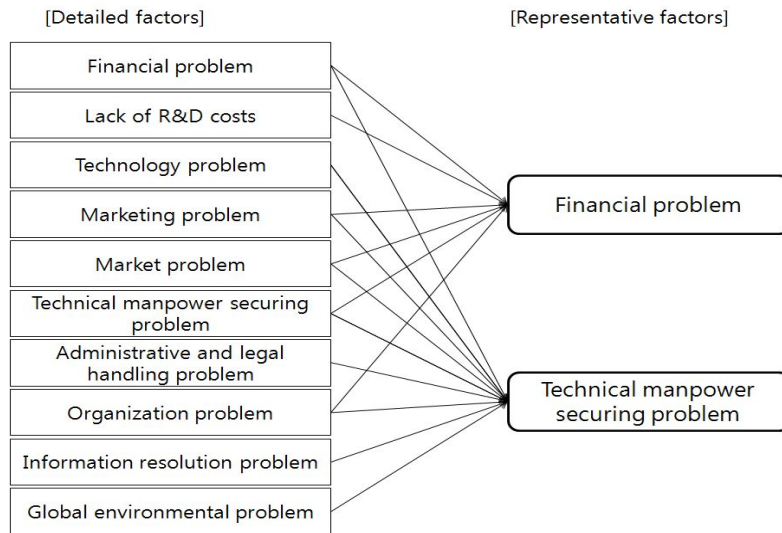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에게 이르기까지 사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여러 저성장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기업에서 거론한 사회, 문화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에서 발견되는 장애요인을 일부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방향성이 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요인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 1) 자금문제
- 2) R&D 비용부족
- 3) 기술력문제
- 4) 마케팅문제
- 5) 판로문제
- 6) 인력확보문제
- 7) 행정 및 법적처리문제
- 8) 조직문제
- 9) 정보해결문제
- 10) 글로벌 환경문제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규모가 영세한 기업(소상공)들의 여러 저성장 요인들을 살펴봐왔는데, 제시된 10가지 요인들을 크게 2가지 대표요인으로 포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요인으로 자금 문제와 기술인력 확보 문제로 선정하였다. 도식화 하자면 다음 [Fig. 1]과 같다.

이처럼 대표 요인 2가지로 나눈 이유는 심층면접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분한 주요 저성장 요인 10가지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질문에 있어서 중복성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가지 대표 요인으로 함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한 부산지역 내 선박수리업의 저성장 요인 분석



[Fig. 1] Classification of Low Growth Factors in Ship-repair Industry

오른쪽 대표요인 중에서 자금 문제에 연관되는 상세요인은 10가지 상세요인에서 제시된 자금문제에서 R&D 비용문제, 마케팅문제, 판로문제, 조직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모두 금전적 비용이 초래되는 주요 상세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인력 확보문제라는 대표요인에는 자금문제, 기술력문제, 마케팅문제, 판로문제, 인력확보문제, 조직문제, 정보해결문제, 그리고 글로벌 환경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마케팅문제는 자금이 있어야 마케팅을 자유롭게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인력이 있어야만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세요인의 마케팅문제가 대표요인인 자금문제와 기술인력 확보문제에 함께 연관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류함에 있어서 심층면접 이전에 질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참가한 3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자금문제와 기술인력 확보문제로 구분 지었다.

IV.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 본 선박수리업 저성장 요인들

본 연구는 2가지 대표요인들을 중심으로 선박수리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육상 중소기업처럼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상 중소기업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분명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보안 문제로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내부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업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심층면접을 시행하는 대신에 기업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면접에 필요한 질문을 선정하기 위해서 6개 기업의 심층면접 전에 전문가 3명을 통해서 심층면접에 대한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금문제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 원청의 결제대금 지연으로 인한 사업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 (6)
- 경기불황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2)

- 원청이 지나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6)
 - 정부의 지원금 제도가 부족하다. (2)
 -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높은 편이다. (5)
- [기술인력 확보문제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 (5)
 -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술인력과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 (3)
 - 기술인력과의 소통이 어렵다. (2)
 - 현장에서의 통제가 어렵다. (2)
 - 젊은 층의 우수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3)
 - 기술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3)
 - 자발적인 업무 수행 및 업무지시에 대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3)

- 우수한 기술인력의 인건비가 매우 높다. (5)
- 의사소통 문제가 많다. (3)

[이외 기업의 성장장애 요인에 대한 내용]

- 지속적인 경기불황 (6)
- 원청과 하청 간의 여러 관행 문제 (6)
- 선박수리업 분야 기술자 양성 교육 부족 (5)
- 선진 교육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 소속감 부족 (3)
- 정부지원 부족 (4)
- 법적 조치 미비 (3)

심층면접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안을 가시적으로 <Table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Table 1> In-depth Interview Results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depth interview contents
6 companies	Continuous economic recession
	Delayed payment from main contractor
	Require excessive price cuts
	Practices between mai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5 companies	High labor cost
	Lack of training in technician training in ship repair business
	Problem of securing excellent technical manpower
4 companies	Lack of government support
3 companies	Frequent turnover
	Lack of younger technician
	Lack of safety awareness
	Lack of business ability
	Communication problem
	Lack of advanced education
	Inadequate legal action
2 companies	Communication member
	Difficulty of control
	Difficulty of financing
	Insufficient government subsidy system

6개 기업이 공통으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경기 불황은 현재 직면한 해운산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나머지 3가지 내용은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모든 기업들이 공통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원청의 결제대금 지연과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 그리고 기업 간의 관행이 그것이다. 최근 해운산업과 관련한 관행에 따른 문제를 언급한 뉴스들을 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깊다는 점을 짐작 가능케 한다.

원청의 결제대금 지연과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 그리고 기업 간의 관행이 그것이다. 최근 해운산업과 관련한 관행에 따른 문제를 언급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깊다는 점을 짐작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인건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우수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복잡한 선박수리 작업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고, 처리능력이 높은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방금 전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자금에 관한 문제점들과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선박수리업의 주요 저성장 요인으로 보고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V. 선박수리업의 주요 저성장 요인과 개선책

1. 주요 저성장 요인

먼저 6개 기업이 모두 지적한 문제점들 중에서 경기불황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외적인 요인이라 판단할 때,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은

매우 내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원청과 하청간의 관행과 결제대금 지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로써 선박수리업과 같이 주로 하청의 입장에 있는 기업은 늘 원청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에 대한 반응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육상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상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대상이 거의 일정하다보니 그 심각성이 더욱 더 심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결제대금 지연에 있어서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결제가 지연된 적이 있다고 한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기업들 중에 5곳이 1년 넘게 결제대금을 못 받았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해당 원청과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청적인 선박수리업의 경우, 재료비 지급 또는 인건비 문제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빌릴 필요가 없는 돈을 빌려서 비싼 이자를 내가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래처 유지가 가장 큰 이유이다.

결국,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사업실패 유형에서 두 번째에 해당될 우려에 놓이게 된다.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은 상태이지만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어음이 부도처리될 수 있는 시점까지 몰아갈 수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선박수리업에서의 결제대금 지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육상 기업인 건설 분야의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지불제도에서부터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하청기업을 보호하는 지원책이 있는데, 선박수리업

분야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이다.

선박수리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의 연속이다. 단순한 기술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고급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일반적인 작업의 경우, 육상에서 활동한 일반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지만,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경우, 선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고급 기술자만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급 기술자를 확보하는데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작업 등으로 인해, 흔히 3D 업종이라는 점 때문에, 고급 기술자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조선해양 분야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선박수리업 중심 교육은 현재 부산 서남권 지역에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영세한 선박수리업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로 고급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심층면접에 참여한 기업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자라면 고인건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채용해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의 우수한 기술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앞으로 기술자 확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어 고급 기술자 확보가 어려운지를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층면접에서 지적한 선박수리업 관련 전문 기술자 양성 교육이 시급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자 배출이 많을 경우,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선박수리업의 재성장을 위한 개선책 및 제안

분명 선박수리업은 앞으로 그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최근 노령화된 선박의 생명 연장을 비롯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비준에 따른 의무적 선박평형수설치를 고려할 때, 선박수리업은 저성장 곡선에서 탈피하여 정상패도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산업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저성장 요인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 원청과 하청 간의 관행 완화

원청과 하청 간의 관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결제대금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도급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선박수리업은 국내 산업에서 머물 산업이 결코 아니다. 선박수리업은 국제적 시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선박수리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지불제도 확대
- 지급보증제도 도입
-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및 거래실태조사 강화시스템 도입

나. 기술인력 양성 교육 확대

고급 기술자 확보를 위해서 좀 더 확대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선박수리업을 위한 교육은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Lim Yong-Suk & Jung Ho-Jin(2017)의 도제식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기술교육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른 타 산업에서 유사 업무를 한 경험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생을 모집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배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 선박수리전문양성 교육의 확대
- 인문사회계열 졸업자 중심 기술교육

먼저 수리전문양성 교육의 확대는 현존하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박수리업관련 기술을 배양토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년 또는 4년제 인문사회계열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은 기술인력 배출 시간은 늦어도 수리분야 이외의 지식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업 내 조직생활을 비롯하여 국제화를 준비하는 인력으로 충분히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지역인 중국과 일본으로 배출된 기술인력을 해외기술자로 파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해외수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Ⅶ. 결론 및 향후 연구

지금까지 본 연구는 여러 기업 유형에서 언급하는 저성장 요인들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수리업 기업인들을 대상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선박수리업의 저성장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러 요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언급하였다.

분명한 것은 선박수리업은 육상의 중소기업과는 다소 다른 환경이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해양산업의 구조상 환경이 특수하다보니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즉 거래처가 매우 제한된다. 게다가 원청과 하청 간의 관행을 근절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선박수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술력 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인력 배출에 있어서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

제라 판단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자면, 부산의 주력 산업과 선박수리업을 융합하여 다목적 인프라를 구현한다면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선박수리업에 대한 저성장 요인을 연구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4차 혁명산업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주류 산업에 대해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본 연구는 좀 더 심층면접 대상 및 설문대상자를 확대하여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생산할 계획이다. 컨조인트 분석은 원래 마케팅 분야에서 해당 제품 또는 기업의 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선호도 조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선박수리업에서의 문제점을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좀 더 상세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성장 요인에 대한 각종 변인들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Hwang, Sun-Hong(2005). A Study on the SME Competitiveness Model Based on Analyzing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 Case Studies, Department of e-busines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120.
- Jung, Dae-Yong & Kim, Young-Soo(200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al Supporting Stages and the Ecosystem Model for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 163~196.
- Jung, Seung-Wha & An, Joon-Mo(1997).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Software Ventures, Korea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1, 210~216.
- Kim, Byung-Man(2014). The Impact of Performance

- Inhibitors on the Difference between ex Ante and ex Post Performance : Focus on the Korea Manufacturing SMEs, Kore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5), 165~182.
- Kim, Kyung-Jo · Kim, Tae-Hun, & Choi, Jin-Bae (2008). Main-bank Relationships of Women-owned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Space and Society, 29, 68~93.
- Kim, Moon-Gu · Kim, Hei-Tae · Jang, Hyun-Jun & Park, Jong-Hyeun(2016). A Study on the Promotion and the Barriers Factors related to the Growth of Domestic SMEs,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2015, 85-88.
- Kim, Young-Ok & Lim, Hee-Jung(2006). An Exploratory Study on Obstacles of Korean Women Entrepreneurs, Woman Research, 71, 107~140
- Lim, Yong-Suk & Jung, Ho-Jin(2017). Proposal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Apprenticeship Education for Securing the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Ship-repair Industry, -Focused on the Educational Program of RIMS-,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9(3), 822~833.(in Press)
- Suh, Jeong-Heon & Han, Kyeong-Suk(2009). Emprical Study for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a Barrier to Growth of Domestic Micro Business, Internet Business Research, 10(1), 9~41.
- Sung, Ji-Eun & Park, In-Young(2013). Analysis of Changes in Innovatio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in Response to Low Growth, STEP Insight, 68, 1~25.
- Sung, Ji-Eun(2013). Direction of Reform of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System in Response to Low Growth, STEP Insight, 125, 1~33.
-
- Received : 19 June, 2017
 - Revised : 24 July, 2017
 - Accepted Table: 02 August, 2017